

지역재생관점의 로컬 커먼즈 구현 가능성 연구: 로컬 자원과 자산화 사례를 중심으로*

류석진 | 서강대학교 **

조희정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용복 | 경남대학교 ****

| 국문요약 |

이 글은 커먼즈 정책(혹은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 정체성, 개념 문제를 바탕으로 개념과 범위가 유형에서 무형, 부존에서 창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체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커먼즈가 아니라 로컬 커먼즈나 생활 커먼즈와 같은 실감도 높은 개념이 필요하고, 시민자산화나 마을호텔과 같은 실천형 커먼즈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제도 부문의 선제적 커먼즈 생태계 기반 조성 지체, 제도의 하향식 운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문제와 비제도 부문의 상향식 주민 수요 발굴, 구현방식으로서 다양한 커먼즈 방식 적용, 로컬로의 범위 확장 등 총 여섯 가지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커먼즈, 지역재생, 로컬자원, 로컬자산화, 마을호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8S1A3A2075237).

** 제1저자

*** 교신저자

**** 제2저자

I. 문제제기

이 글은 공유자원을 의미하는 커먼즈(communs)¹⁾ 개념과 커먼즈 구현방식을 의미하는 커머닝(commoning)²⁾에 대한 정리에 기반하여, 최근에 더욱 부각되고 있는 커먼즈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도시’ 커먼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로컬 커먼즈 및 생활 커먼즈로 커먼즈 ‘범위를 재정의하거나 복원’할 필요성과 다양한 커머닝 방식 확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시론적 글이다. 커먼즈 개념과 커머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커먼즈 개념 수용 노력의 필요성

첫째, 커먼즈 개념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리피에즈에 따르면 커먼즈 단어의 기원은 정복왕 윌리엄과 노르만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커먼즈의 어원은 노르만 단어 *commun*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commun*’은 ‘다시 선물’이라는 뜻과 ‘답례’, ‘의무’라는 뜻을 둘 다 갖는 단어인 ‘*munus*’에서 온 단어로 개념화되었다(Bollier 2015, 250-251).

2017년 P2P재단의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는 벨기에 겐트시 커먼즈 전환계획(Commons Transition Plan for the City of Ghent) 사례를 분석하면서 커먼즈를 ‘공동소유·관리하는 공유자원’이라 정의하고 그 방법으로써 커머닝과 자치 거버넌스를 제시하였다(Michel Bauwens & Yurek Onzia 2017. 6). 바우웬스 이전에도 오스트롬(Elinor Ostrom 1991) 등은 자원을 시민이 주체적으로 공

1) 국내 도서와 논문에서 커먼즈는 공유재, 공유자원, 공동자원, 공동자산 등 맥락에 따라 여러 단어로 표현한다. 바우웬스의 글을 번역한 조윤경은 이를 포괄하여 커먼즈로 표기하였는데, 이 글 역시 포괄적 의미로서 커먼즈라고 표기한다(Michel Bauwens & Vasilis Niaros 2017, 7). 한편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을 Common-Pool Resources(CPRs)로 명명하였다(Elinor Ostrom 1991).

2) 보통 커머닝은 ‘공유화’라고 번역한다.

동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자원의 중요성과 커먼즈의 여덟 가지 지속조건을 명료하게 밝힌 바 있다.

커먼즈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광노완(2015, 101)은 “토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기, 물, 지하자원과 같은 공유의 자연재 및 문화, 언어, 무상교육, 공유기업 등 해당 공동체 성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역사적·사회경제적 자원 내지 재화”를 커먼즈라고 급진적으로 규정하였고, 커먼즈 개념을 현재에 대입하여 좀 더 상세히 정의한 홍기빈은 소유에 기반한 플랫폼(Platform) 기업에 맞선 커먼즈의 대안적 의미를 강조하며, “플랫폼이 투자자의 배타적 소유물이 되고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으로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 심지어 직접 참여하지 않는 폭넓은 공공의 공동소유가 되면서 그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합치고 운영하며 거기에서 나온 이익을 함께 배분하고 향유하는 전체 과정을 함께 관리하는 전 과정”이 커먼즈라고 정의했다.³⁾

1968년 하딘(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오스트롬이 공유지의 ‘희극’이라는 가능성으로 맞서고 이후엔 공유지의 ‘드라마’⁴⁾가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먼즈에 대한 급진적 정의 혹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개념 확장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커먼즈 개념에 대해서는 이 글의 2장 1절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따라서, 최대주의적 해석 혹은 최소주의적 해석이든, 다양화 혹은 혼선이든 커먼즈 개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 커먼즈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

둘째, 커먼즈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동자원관리로서의 커먼즈는 정책이나 사회운동에서 모두 매력적인 개념이다. 정책 차원에서는 거버넌스

3) 홍기빈. 2019. “플랫폼 기업의 대안 ‘커먼즈’.” 『경향신문』(9월 27일), 23.

4) 정영신(2014)

와 민주주의, 시민참여를 포괄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책철학으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서울시 공유도시 계획도입과 함께 정책 차원의 커먼즈 서비스 확대로 나타나고 도시 커먼즈라는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서울시의 선행정책효과가 광역시에도 이어져 2020년 현재까지 서울 포함 총 8개 지자체에서 커먼즈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⁵⁾

(이 글에서의 커먼즈 개념과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 2016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공유자원 현황 파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⁶⁾ 신자유주의 시대, 강력한 정부와 시장의 시대에 정책 부문에까지 커먼즈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커먼즈의 확장성에 많은 시사점을 내포한다.

한편, 사회운동영역에서도 커먼즈가 인기이다.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공간, 환경, 지식생산물,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에 이르기까지 현대적 커먼즈 자원을 발굴하고, 시민연대를 실천하는 것은 그 어떤 사회운동보다 역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때로 극심한 갈등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 그 자체가 살아있는 정치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커먼즈 사회운동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많은 자원이 커먼즈의 이름으로 호명되고, 커먼즈 대상이 되어, 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커먼즈의 정치적 존재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 정책 커먼즈와 사회운동 커먼즈가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 커먼즈에는 공유 개념이 더해져 커먼즈와 다른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아울러 토지, 공간 등 물질공간의 소유권 문제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법적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에서 커먼즈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비제도 측면에서 사회운동으로 커먼즈 운동을 주창하는 것은 가능할 수

5) 서울 외에 현재까지 커먼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경기(2014년), 부산(2015년), 대전(2016년), 대구, 인천, 광주, 전북(2017년)이다.

6) 2014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은 455만 필지(토지), 13만 동(건물), 면적 8,328km²이며, 가액은 556.7조원 규모이다(행정자치부 2016.04.07.).

있지만 정책 측면에서 커먼즈를 주도하는 것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3. 커먼즈의 당면과제 해결 노력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행위자 요인), 시민의 요구(행위자 요인과 사회적 요인), 자본주의 소유구조의 한계와 위기, 양극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불평등(경제적 요인)과 같은 세 가지 부문의 복합적 요인을 바탕으로 커먼즈 개념의 다양화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커먼즈 정책과 논의는 10년여 정도의 확산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행위자 제한성 문제’가 있다. 서울시 기초자치구나 서울 외의 광역지자체에서 서울시 공유도시계획과 같은 계획·조례·정책 수립이 증가하고 있지만 커먼즈와 같은 공유방식 활성화나 선순환적인 커먼즈 생태계 구현보다는 일방적인 정보제공형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있을 뿐 시민주도형의 실질적인 커먼즈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즉, 커먼즈 자체에 대해 -자치단체장만의 의지로 사회적으로 소개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자치와 공동체 가치에 대한 범용적 이해가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 외에는) 정부 관리 자원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은 주도자가 아닌 단순 소비자나 이용자로서 수동적 주체로 자리 매김되는 제한성과 비민주성 문제가 있다.

둘째, 본질적으로는 커먼즈 개념, 즉 ‘공유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어려움’ 문제가 있다.⁷⁾ 커먼즈는 공유경제가 아닌 공유자원의 공동관리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등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서

7) 커먼즈 용어에 대한 번역과 개념 혼선 문제에 대해서는 정영신(2014), (2016); 최현·Tai Hsing-Sheng(2015) 참조.

비스들이 공유경제를 주창하면서 공유의 의미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⁸⁾ 커먼즈 개념의 혼선과 훼손 문제는 타다 서비스 갈등, 경의선 공유지 갈등으로 더욱 격화되었고, 최근에는 서울시 문화공원화에 이의를 제기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⁹⁾

공유 개념을 - 기존 영리추구형 서비스와 구분 짓는 의미에서 - 사적 소유의 해체라는 급진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환도시, 커먼즈 도시, 공유도시 등이 혼용되면서 추상적 담론, 도시에 한정된 정책이라는 의미 왜곡도 발생하고 있다. 커먼즈 개념의 단초에 대해 강조한 김광현은 커먼즈는 자본주의 이전에 존재했던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공(共)은 사(私)와 공(公)의 바탕이지 사(私)와 공(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였다.¹⁰⁾ 이에 비해 타베타 마사히로(多田田政弘)는 사(私)와 공(公) 사이에 있는 공(共)을 공동자원 영역으로 규정했다(정영신 2014, 212에서 재인용).

결국,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전환된다는 것인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커먼즈는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공유와 공동의 차이는 무엇인지, 공유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공유의 구현수단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커먼즈의 공간성(지역성), 속성, 커머닝 방법, 범주 등에 대한 실용적 범위 설정과 용어 재해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4. 글의 구성

이 글은 커먼즈 개념에 대한 정리, 로컬 자원의 커먼즈화 가능성, 커머닝 방식

8) 커먼즈를 ‘국가나 기업,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동재화를 늘려나가는 고민’이라고 표현한 정선에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커먼즈를 ‘사회적 공공재’나 ‘시민 공공재’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정민. 2019. “공유는 렌탈이 아니다... 시민이 중심.” 『조선비즈』(10월 4일))

9)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매각 방해, 권익위에 SOS.”(『YTN』2020.06.13.)

10) 김광현. 2020. “공(公)이 있기 전에 공(共)이 있다.” 『한국경제』(2월 17일), 33.

의 현재성을 검토함으로써 커먼즈 담론을 넘어서서 커먼즈의 경험적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소유구조의 해체 혹은 재구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커먼즈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정교한 정책철학과 좀 더 포용적인 커머닝 방식을 고려한다면 갈등 조정이나 해소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을 시론적 성격으로 규정한 이유는 공고한 사적 소유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커먼즈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급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험으로서의 커먼즈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 커먼즈의 확장 가능성을 시도한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커먼즈 개념의 공고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사례는 현재진행중이고 사례 자체가 분석은 아니기 때문에 밀도 있게 사례분석을 진행하진 않았다. 다만 커먼즈를 둘러싼 현재의 혼란스러운 구조에서 의미있는 의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론이라고 평가한다.

이 글은 커먼즈에 대한 제도적 일방성, 복합적 정체성, 불분명한 개념문제 속에서 도시 커먼즈 개념을 로컬 커먼즈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도시재생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커먼즈 개념을 로컬 중심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로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커머닝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지역, 도시, 로컬의 개념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존 논의와 사례에서 나타난 커먼즈 개념과 구현방식으로서의 커머닝 그리고 이미 구현되고 있는 커머닝 분야를 검토하여 개념 재설정, 커머닝 방식 다양화의 필요성과 커먼즈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3장에서는 로컬 커먼즈와 커머닝이 구현된 사례를 소개하여 도시 커먼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로컬 커먼즈와 커머닝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는 로컬자원을 부존자원, 발견자원, 창조자원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로컬 커머닝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로서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로컬 커먼즈와

커머닝의 실재를 소개함으로써 커먼즈의 도시 범위라는 제한성을 넘어서는, 로컬 커먼즈나 생활 커먼즈로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다양한 로컬 커머닝 방식에 대한 연구가 커먼즈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 제3장의 목적이다.

기존 이론연구와 경험연구에 이어 제4장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천적 쟁점을 제시한다. 즉 제도 부문에서는 선제적 커먼즈 생태계 기반 조성의 지체, 제도의 하향식 방향성 문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문제와 비제도 부문에서는 상향식 주민 수요 발굴 문제, 구현방식으로서 다양한 커머닝 방식 적용 문제, 로컬로의 범위 확장 문제 등 총 여섯 가지 문제를 쟁점으로 정리한다.

결론에서는 현재까지 10여 년간 진행된 커먼즈 담론의 외연을 실천적으로 확장하고, 실용적 측면에서 다양한 커머닝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커먼즈 실천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내포적 개념의 심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II. 커먼즈의 특징과 쟁점

커먼즈 개념화의 어려움과 복합적 정체성이라는 문제제기를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커먼즈나 사회운동 커먼즈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즉, 커먼즈 개념과 범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정책 커먼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 차원에서 커먼즈 개념을 재설정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다양한 커머닝 발굴을 통한 커먼즈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1. 커먼즈 개념과 범위: 커먼즈 유형의 다변화

커먼즈와 커머닝에 대한 많은 사례를 비교연구 한 오스트롬은 기본적으로 커

먼즈 범위를 감소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오스트롬 연구에 대해서는 근대적인 사적소유제도와 자본주의하에서의 자원이용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으며, 커먼즈의 구체성보다는 이론의 일반화 중심으로 연구하여, 공동자원으로서 커먼즈 형성이나 해체와 같은 변동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정영신 2016, 413-415).

〈표 1〉 오스트롬의 재화 분류 범주

구분	배제성	비배제성
감소성	사적 재화(private goods) 나무, 양, 물고기, TV, 케이블 TV셋탑박스, 컴퓨터 책, 빵, PC	공동자원, 공동재(common pool resource) 숲, 목초지, 어장, 관개시설, 지하수, 매장지역에서 뽑아 올리는 석유, 인터넷의 속도와 질, 도서관
비감소성	클럽재(club goods, 요금재) 케이블 TV, 유료도로, 고급 레스토랑, 사교모임, 신문구독, 놀이방, 탁아시설	(순수한) 공공재(public goods) 국방, TV방송, 정치, 햇빛, 인터넷, 과학지식

* 자료: Mckean(2013), 오스트롬·헤스(2010, 35)에서 재구성(정영신 2016, 410에서 재인용)

수많은 비판만큼이나 오스트롬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커먼즈가 생성되었다, 바우웬스와 니아로스는 오스트롬 학파가 연구한 ‘천연자원 커먼즈’에서 길드 시스템, 복지 시스템, 자치 코뮌, 협동조합 등 ‘사회적 커먼즈’로 변화하였고, 인터넷 출현 후 네트워크사회가 형성되면서 ‘지식 커먼즈’의 중요성이 등장하였고, 물리공간과 디지털공간이 합쳐진 피지털(physital, physical+digital)이 이루어지는 핵심 장소인 ‘도시 커먼즈’로 변화했다고 분석하며 <그림 1>과 같은 기준으로 커먼즈 유형을 분류하였다(Michel Bauwens & Vasilis Niaros 2019, 27-30).

〈그림 1〉 네 가지 유형의 커먼즈



* 자료 : Michel Bauwens & Vasilis Niaros(2019, 31)

즉, 각 유형을 커먼즈 범위 혹은 유형의 진화 과정으로 본다면 천연자원 커먼즈에서 조합(union)과 같은 사회적 커먼즈가 출현하였고, 디지털 커먼즈(digital commons)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지리적 조건에 기반한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가 있다면 재지역화가 진행되는 생산 커먼즈도 있다고 설명한다(Michel Bauwens & Vasilis Niaros 2019, 32).

유형에서 무형으로, 부존에서 창조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커먼즈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단, 각 유형은 본질적 특성의 차이가 있지만 – 사회환경 변화가 단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현재에도 오랜 유형의 커먼즈와 새로운 유형의 커먼즈가 병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윤 추구를 위한 배타적 소유의 대척점에서 자생적 의미의 커먼즈가 생성된다는 사실은 본질이지만 그 외에 새로운 커먼즈 유형의 등장 가능성, 다양한 커먼즈의 복합성, 커먼즈의 전략적 선택성과 정치적 문제 또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2. 정책 커먼즈에서 나타나는 인식확산의 어려움

커먼즈 개념의 유형이 아닌 정책 커먼즈 사례로서 서울시 공유도시정책을 보면 물건, 공간,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공유도시정책에는 인구 30만 명인 도시에서 최근 10년간 500개의 도시 커먼즈가 탄생했다는 벨기에 겐트(Ghent)시 사례나 바르셀로나(스페인), 볼로냐(이탈리아), 나폴리(이탈리아), 밀라노(이탈리아), 프롬(영국) 등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주.도시 정부에 따라 다양한 공유도시 사례가 진행되어서 합법화를 추진하는 샌프란시스코 등 9개 시, 분야별 찬반 양립이 있는 시카고 등 22개 시, 공유도시 정책에 부정적인 뉴욕 등 15개 시, EU 산하 위원회의 유럽공유경제연합(2013년), 영국 공유경제정책의 본격화(2014년)도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쳤다(서울시 2015, 2).

물론 서울시가 공유도시정책을 커먼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유도시에서 공유(sharing)라는 개념이 보편적인 기초(혹은 공공) 서비스를 공유도시사업으로 제공하는 차원도 있다. 이에 더하여 커먼즈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향식 정책추진, 지속적인 공유기업 확보의 어려움, 전담조직 부재 등의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서울시 2015, 5). 실제로 공유도시에 대한 인식평가에서도 몇 개 공유 서비스에 대한 파편적 이용 외에 질적인 의미 습득이나 커먼즈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식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표 2> 참조).

〈표 2〉 서울시민의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2016-2019년)

단위: %

구분	년도 항목	2016년 (2,500명)	2017년 (2,500명)	2018년 (1,000명)	2019년 (1,000명)
인지도	- 따릉이(자전거)	89.1	92.9	92.5	95.2
	- 나눔카(자동차)	88.5	88.1	71.6	71.6
	- 주차장 공유	66.6	71.5	48.6	53.6
	- 공유대여소	50.1	54.2	19.7	-
	- 아이 옷·장난감 공유	64.3	69.3	30.8	-
	- 공공시설 개방	64.9	60.2	28.2	-
	- 공공데이터	60.1	-	25.6	33.2
경험도	- 따릉이(자전거)	29.4	27.2	38.9	-
	- 나눔카(자동차)	20.3	22.2	20.5	-
	- 주차장 공유	22.1	17.2	15.6	-
	- 공유대여소	15.5	9.7	6.0	-
	- 아이 옷·장난감 공유	20.1	14.0	6.8	-
	- 공공시설 개방	21.3	14.4	10.9	-
	- 공공데이터	15.4	-	14.4	25회
만족도	- 따릉이(자전거)	88.8	88.4	93.9	-
	- 나눔카(자동차)	90.9	87.9	91.0	-
	- 주차장 공유	89.4	79.7	88.8	-
	- 공유대여소	94.4	92.8	86.4	-
	- 아이 옷·장난감 공유	96.9	85.3	90.9	96
	- 공공시설 개방	95.2	91.2	88.7	-
	- 공공데이터	88.4	-	84.4	-

* 자료: 서울시(2016. 10; 2017; 2018. 12; 2019.12.3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들이 이들 서비스를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저 단순한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공동자원에 대한 자생적인 공동관리, 공동제도화를 커먼즈의 핵심이라고 본다면¹¹⁾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은 공동자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동관리하는 주체로는 지방정부만 보이며,

시민의 공동자치제도는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커먼즈 구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한계를 보이고 있다.

Ⅲ. 지역재생관점의 로컬 커먼즈와 커머닝

1. 로컬 커먼즈의 범위: 로컬 자원

오스트롬 이후의 커먼즈 연구는 주로 농촌 중심의 작은 지역 커먼즈 연구¹²⁾에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한편으로는 규율과 법을 강조하는 제도 분석 모델 연구(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안으로서 커먼즈의 복잡한 관리구조와 구조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생태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 모델을 적용하면 로컬 행위자, 자원, 단위, 체계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할 수 있다(최현 · Tai Hsing-Sheng 2015, 168-177). 또한 커먼즈의 원래 의미 자체가 자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자원, 특정 공동체, 자치규약 등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포괄적이고 구성적 의미에서 커먼즈를 분석하기 위해 로컬 자원과 커머닝 방식에 주목한다.

11) 오스트롬은 커먼즈를 움직이는 세 가지를 집합적 행동, 자율적 지배구조, 사회자본이라고 제시하였다(박숙자 2020, 209).

12) 대체로 50여 명-15,000명 이내 규모(Ostrom 2010, 61)

〈그림 2〉 사회생태계 다층진단법(multi-tiered diagnostic approach for social ecological analysis)



* 자료 : 최현 · Tai Hsing-Sheng(2015, 175)

자원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전통적인 자원 분류는 경합성(감소성)과 배제성 기준을 따른다. 이 기준에 의하면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자원이다. 즉, 자연자원처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고갈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기적 사용으로 자원체계가 고갈되는 공유 비극 상황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의 규율이나 관리 및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커먼즈가 진행되려면 타인의 규제보다는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만드는 자치규율이 필요하다. 자원 낭비, 무한 경쟁, 신뢰 상실 문제에 대한 자생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오스트롬은 커먼즈의 장기적 지속을 위해서는 여덟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물론 이 원칙은 엄격한 청사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지침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소규모’ 공유재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Bollier 2015, 59).

〈표 3〉 오스트롬의 커먼즈 장기 존립 조건

연번	조건
1	사용자와 자원의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2	사용규칙 및 공여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3	집합적 선택장치
4	내부 감시활동
5	점증적 제재조치
6	저렴한 비용에 의한 갈등해결 장치
7	외재적인 정부당국에 의해 도전받지 않는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
8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

* 자료: Elinor Ostrom(1991, 189)

경제 위기나 디지털화에 따라 커먼즈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환경변수로서 지역소멸, 인구절벽, 지역재생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즉, 지역 내의 커먼즈 유형 분류만큼이나 소멸하는 지역 자체가 –자원체계가 고갈되는– 새로운 커먼즈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이 글에서의 로컬은 근대사회에 차별적으로 부르던 지방이나 지리적 의미로 한정하는 지역 개념이 아니다. 현재의 지역재생은 지방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한정하기에는 인구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이나 지역이라고 부르는 어렵다. 지역재생이라는 용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말을 차별화하여 부르는 어렵지만 로컬은 각자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장소’, ‘삶의 공간’이라고 상대적으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생각하는 로컬이 다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이 글의 이후 부분부터는 ‘로컬’로 표현을 통일하여 사용한다).

최근 2-3년간 로컬 창업자들이 급증하였는데 이들은 자활기업이 대부분인 사

회적 기업이나, 생계형 창업에 비하여 기회형 창업을 의미하는 벤처(venture)와 다르게 지역성(locality)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생태계 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로컬 벤처(local venture), 지역활동가(localist)에 가깝다. 로컬 벤처는 단순히 공간을 로컬로 이동하여 창업하거나 산업사회와 같은 형태의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용으로 새로운 산업을 형성한다.

지역재생 차원에서 로컬 벤처는 외부인의 소비나 자원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경제¹³⁾가 아니라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로컬의 강점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창업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용하는 자원은 기존의 공유자원처럼 분류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즉,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경합성이나 배제성 같은 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로컬 자원을 경험적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로컬 벤처의 로컬 자원 이용 유형을 부존자원의 활용, 발견, 창조 세 가지로 구분한다. 단, 이 세 가지 자원은 서로 중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으로 독립된 유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첫째, 로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존자원(Endowment)을 발굴하는 방식이 있다. 부존자원은 로컬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자원과 사회문화자원으로서 전통적인 커먼즈 개념에 가깝다. 예를 들면, 폐광, 폐양조장, 조선폭, 해변과 같은 자연 자원과 오래된 시설 및 유희공간, 자연생산물, 역사자원 등이다. 도시공학이나 건축 분야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온 도시재생, 공간재생 등의 사업도 주로 부존자원을 이용한 형태가 많다.

이미 있는 자원을 이용한다고 하면 매우 쉬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필요가 발명을 낳듯이 부존자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로컬 벤처를 통해 발굴되고 활용된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면 부존자원을 가장 많이 가진 로컬 벤처가 가장 번성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

13) 천수답 경제는 ‘천수(天水), 즉 비가 와야만 운영할 수 있는 논(畝)처럼, 관개시설 등 자체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부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제상태’를 의미한다.

지 않다. 로컬 벤처가 부존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경합성보다 배제성을 더 신경을 쓴다. 부존자원은 가장 쉽게 커먼즈 범주에 들어가는 자원이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만 생태운동, 환경보호운동, 마을공동체 자원과 같은 공유성에 대한 강조를 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 높인다.

둘째, 이미 있는 개념에 로컬 자원을 새롭게 접목시켜 발견자원(Discover Resource)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기존 형태나 아이디어는 유지하면서 로컬의 장점으로 자원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미 있는 사업형태에서 착안했으니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남들은 쉽게 보는 흔한 사업형태에 로컬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창조자원과 다를 바 없는 창조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도시에서 하기 어려운 로컬 자원에 창의적인 문화개념을 더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가치소비를 지향하고, 결과로서의 제품보다 원료 생산지와 과정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최근의 흐름에도 정확히 부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면, ‘수제’ 맥주, ‘산골’ 유학, (북카페가 아닌) 북‘스테이’, ‘마을’호텔, ‘아티스트/작가’ 레지던스, 치맥이 아니라 ‘책맥’, ‘해양’ 환경보호, ‘라이프스토어’ 카페, 전통시장 속의 ‘청년몰’과 같은 응용사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발견자원은 이미 있는 민간재에 창의적 개념을 더하여 커먼즈 개념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한 전환 과정에서 가치 범위가 더 풍부해지고, 지역성을 부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새로운 로컬 자원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원(Create Resource)도 있다. 이는 주로 콘텐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존 로컬 자원뿐만 아니라 행위자 고유의 자원(경력, 재능)을 로컬과 접속시켜 (숨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를 거치며 새로운 가치나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창조자원이라는 말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만들어내기 힘든 형태이다. 예를 들면, 지역명을 상품명으로 적용하거나, 신도불이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푸드 허브 프로젝트, 새로운 방식의 네트워크 공동체 형성 등이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자원들이다.

아직까지는 – 부존자원에 비하면 – 발견자원이나 창조자원은 실재하는 자원이 라기보다는 개념적 자원에 가깝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자원 창출을 통해 로컬에 대한 의식과 커먼즈 범위와 구조가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커먼즈에서 논의하는 자원 개념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분류기준 혹은 평가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새로운 로컬 커머닝 유형: 마을호텔과 주민 자산화

로컬 벤처들이 시도한 새로운 형태인 마을호텔¹⁴⁾은 이윤추구성을 가진 영리사업이다. 그러나 영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협력과 공유자원을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커머닝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실제로 매출전액을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마을호텔은 이미 있는 호텔 개념에 지역성을 적용하여 ‘마을’호텔로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발견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호텔의 본질적인 목적은 지방소멸, 인구절벽의 시대에 로컬을 찾는 인구를 늘려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재생이라는 커먼즈 목표 속에 영리목적을 일부 포함한 형태 혹은 경제성과 규범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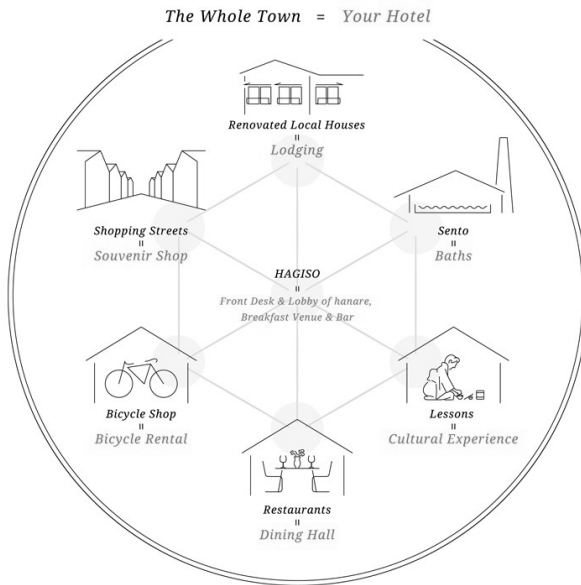
마을호텔의 원형은 이탈리아의 알베르고 디푸소(Albergo Diffuso)이다.¹⁵⁾ 알베르고 디푸소는 1970년대 지진 이후에 복구된 주거지와 로컬을 관광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방문객은 역사 도심부의 삶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호텔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편, 방문객들을 위한 공동 서비스

14) 2019년 2월 기준으로 전국의 마을호텔은 10곳(전북, 강원, 서울 각 2곳, 충남, 충북, 경기 부산 각 1곳)에서 추진 중이거나 조성 완료했다(김미향, 2019. “우리지역도 마을호텔, 전국 10곳에서 추진중.” 『한겨레신문』(2월 9일), 9.

15) 수평 호텔(flat hotel), 분산 호텔(Dispersed Hotel), 흩어진 호텔(Scattered Hotel)이라고도 부른다.

및 시설, 공간 등을 포함하는 현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모든 거주공간은 알베르고 디푸소의 핵심(리셉션, 공공환경, 휴식지역)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거리 내에 위치한다는 물리적인 경계를 갖는다. 이미 존재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복구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유기적인 망을 구축하는 것이다.¹⁶⁾

〈그림 3〉 일본 하나레의 운영구성



* 자료 : <http://hanare.hagiso.jp/en/>(검색일: 2020년 2월 10일)

이것이 일본 교토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미이지구, 도쿄 야나카 지역의 하나레(Hanare, 2013년)로 구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마을호텔로 나타났다. 국내 마을호텔의 원조는 2013년 문을 연 서울 서교동의 로컬 스티치(Local Stitch)로

16) 광형선. 2010. “이탈리아 소규모 도시들이 살아남는 법.” 『오마이뉴스』(3월 2일)

서 2019년 기준으로 서울에만 8개 지점이 있고, 그 형태는 코워킹 - 셰어하우스 까지 확대되었다.

2018년 8월에 문을 연 공주 봉황재 마을호텔은 관광객과 마을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2014년 공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사업인 역사문화 보존사업을 진행했지만 하향식 사업의 제한성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이를 민간 차원에서 한옥 숙박, 식당, 카페, 사진관, 서점, 갤러리, 잡화, 공방, 볼거리 등으로 조직하여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처럼 논스톱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 봉황재 마을호텔이다.

즉, 장소에 호텔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020년 5월 시작되는 강원도 정선 고한의 18번가 마을호텔 역시 유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탄광지역의 쇠락, 강원랜드라는 대형 리조트가 채울 수 없는 생활공간을 2017년부터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낡은 집 리모델링, 깨끗한 마을 만들기과 동네 상권의 연결을 통해 마을호텔로 구성하였다.

마을호텔이 구성되면 모든 사람은 운명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마을호텔 운영을 위해 2주에 한 번씩 당사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마을호텔위원회 구성 등도 논의한다. 마을호텔위원회, 마을만들기 위원회, 주민들의 협동조합 등은 정선 고한처럼 운영 전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공주 봉황재처럼 운영 후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은 골목 상점을 운영하는 11명의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출연하였다(초기인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의 지원을 받았다).¹⁷⁾ 여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가 등 전문가가 합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결합되기도 한다. 강원랜드와 같은 거대한 상업시설의 고용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로컬을 가장 잘 아는 로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효과를 거둔 것이다.¹⁸⁾

17) 윤수용. 2020.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내달 영업 개시.” 『강원도민일보』(2월 10일), 17.

2019년 9월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건맥 1897 축제에 시민 6천 명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만호동 해산물 상인회와 해산물 조합주민이 기획하고 운영하였는데 이 행사를 기점으로 매일매일 축제인 거리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의 마을펍(town pub)¹⁹⁾과 호스텔(hostel)을 기획하고, 2019년 12월에 ‘건맥 1897 협동조합(<https://www.facebook.com/PUB1897>)’²⁰⁾을 만들어 1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로 6천만 원을 투자받아 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자산화 형태를 시도하고 있다.

주민자산화는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 등 로컬에 필요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안적 소유방식으로서, 공동 소유 자산의 관리와 운영에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며, 자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도 로컬 공동체와 나눈다. 이를 주민자산화, 공동체 자산화, 사회적 부동산으로도 부른다.²¹⁾

Ⅳ. 로컬 커먼즈와 커머닝의 쟁점과 과제

공식적 형태의 정책으로서,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공간으로서의 도시 커먼즈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로컬 커먼즈의 형성 가능성은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 커먼즈의 활성화와 다양한 로컬 커머닝 실천의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적 · 비제도적 부문별 쟁점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18) 이봉구 동의대 교수의 평가 (“마을, 하나의 호텔이 되다... 30년 전 하숙마을 공주의 변신.” 『한겨레신문』 2019.02.08.)

19) 영국의 최초의 공동체 소유 펍 ‘아이비 하우스’는 2012년에 탄생했다(이종규. 2020. “주인이 100명인 마을 펍, 시민자산화로 직진.” 『한겨레신문』(6월 8일))

20) 1897은 목포가 개항한 년도를 의미한다.

21) 이종규. 2020. “주인이 100명인 마을 펍, 시민자산화로 직진.” 『한겨레신문』(6월 8일).

〈표 4〉 로컬 커먼즈와 커머닝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쟁점

제도적 쟁점	비제도적 쟁점
• 커먼즈 생태계 기반 조성 부족 • 제도의 하향식 시행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 부족	• 상향식 주민 수요 발굴 부족 • 다양한 커머닝 방식 적용 부족 • 로컬 커먼즈 개념의 정립 부족

1. 제도 부문의 쟁점

1) 커먼즈 생태계 기반 조성 부족

현재 커먼즈 정책은 주로 물건, 공간,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커먼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적어서 문제이고, 기반 조성의 경우에는 주로 법적인 소유권 문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이다. 커먼즈론의 접근방식은 거버넌스론, 생산양식론, 공동재산론, 공동권리론 등 다양하다. 그러나 공동재산과 공동권은 커먼즈론이 피해갈 수 없는 핵심문제이기도 하다(이병천 2018, 241).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분야별 커먼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먼즈 부문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커먼즈는 특정 아이템 선택만큼 아이템을 선호하고 아이템을 이해하는 생태계 구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각 커먼즈 부문의 연결고리를 잇는 유연한 연대(weak ties) 혹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커먼즈 커뮤니티 및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법제도 문제는 법 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처 간 상이한 해석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임대하여 숙박 스타트업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94년에 제정된 이 법이 26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도 작동하여 숙박 스타트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지자체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²²⁾

주민 생활의 현실에 대한 이해없이 소유권에 기반한 정태적이고 관성적인 행정체제만으로 커먼즈의 활성화는 요원하다. 따라서 커먼즈로 인한 생활개선, 공동체 활성화, 참여촉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행정노력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제도의 하향식 시행

제도의 하향식 시행은 오래된 행정 관행이다. 정부로서는 주도적으로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 모집, 모집을 위한 자원 투입, 형식적인 이용자 수치확대가 중요하다. 세금의 명확한 사용처를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해야 하며, 해당 부처의 주도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조직의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치 커먼즈가 정부의 독점인양 취급되어 주민이 주변인이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은 서비스 이용의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커먼즈에 내재되어 있는 자치규약과 같은 상향식 제도생산방식과 현재의 하향식 제도 시행방식의 접점을 만들고 이를 거버넌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커먼즈를 제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기반한 경제논리와 문화의 지극히 환원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협력논리가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적절한 사회구조와 규범을 통해 이러한 인간주의적 윤리가 정말로 작동한다는 사고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Bollier 2015, 219).

22) 남혜현. 2019. “숙박 스타트업도 규제 논란... 농촌 빈집 공유는 불법?” 『바이라인 네트워크』(6월 20일) 한편,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도시 지원으로 커먼즈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 부족

커먼즈가 정책 부문으로 포함되면서 커먼즈에 대한 주민의 인식, 커먼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무엇보다 커먼즈 생태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밀도있게 반영하는 성과평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식 역시 커머닝과 커먼즈 확보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커먼즈 수준과 인식체계 형성을 위해 이같은 작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로컬 상황을 반영하여 로컬별/분야별/프로젝트별 커머닝 방식의 특징과 시사점, 커먼즈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하고, 커머닝 방식과 커먼즈의 홍망성쇠와 같은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비제도 부문의 쟁점

1) 상향식 주민수요 발굴 부족

로컬 커먼즈의 경우는 리빙랩(living lab)에서 이용하는 방식처럼 주민으로부터 요구 수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어진 커먼즈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익을 창출하게 하는 방식에서 주민의 수요를 커머닝으로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하는 이윤을 다시 로컬로 돌리는 순환형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방식에 대해 오스트롬은 자원을 이용하고 그 이용을 감시하고 집행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 밖의 다른 거버넌스 관련 활동을 수행할 권한은 반드시 여러 수준, 즉 마을·지역·국가·국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중심(polycentric)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Bollier 2015, 59).

그러나 커먼즈는 관리 체제나 거버넌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이자, 개인적 생활이자, 삶의 방식·민주주의 실천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Bollier 2015, 64)

2) 공동체 노동의 생산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커머닝 방식 적용 부족

자원, 공동체, 규약으로서의 커먼즈를 형성하는 과정인 커머닝은 커먼즈 형태 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커머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은 과거의 노동가치론이 포괄하기 어려운 생산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내에서는 이윤창출을 위한 협의적 생산활동을 노동으로 정의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유무형의 노동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 경제 내에서의 동료생산활동뿐만 아니라 토론, 협력, 기부와 같은 무형의 활동도 포함한다. 과거엔 커머닝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커먼즈가 생겼다면, 이제는 자원과 자산이 부족한 커머너들이 공동의 것을 새롭게 만들고 모여 커머닝을 한 결과 커먼즈가 생긴다(박형준 외 2020, 36).

중세 귀족·지주들의 인클로저(enclosure) 속에서 배제되며 내쳐진 평민(commoner)들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디지털 네트워크 확산 속에서 대안적인 사회관계와 사회양식을 표방하며 새로운 존재로 재구성되고 있다(박형준 외 2020, 12-13).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나 로컬 벤처 역시 그런 새로운 주체들이다.

로컬 자원과 로컬 커머닝 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원 자체도 다양한 소비가치를 반영하여 복합적으로 재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이윤과 같은 경제적 소비나 근대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같은 윤리적 소비가 아닌 가치소비와 같은 새로운 조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 커머닝과 로컬 커머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지역재생을 위한 로컬 커머닝에서는 적어도 지역성, 주민합의, 공동체 형성과 같은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과정은 보통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정도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3) 로컬 커먼즈 개념의 정립 부족

커먼즈에 대한 개념 혼란은 공유재 범위 혹은 특성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하딘에게로까지 올라간다(하딘 자신도 나중에 자신의 논문 제목을 “관리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Bollier 2015, 55). 따라서, 공동자원(common resources),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 공유화(commoning)에 대한 좀 더 많은 사례 발굴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볼리어가 제시한 영리 패러다임과 커먼즈 패러다임의 차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5〉 영리 패러다임과 커먼즈 패러다임 비교

구분	영리 패러다임	커먼즈 패러다임
자원	(장벽과 배제를 통해) 희소성이 부여되거나 생겨난다	경합 자원의 경우, 공유를 통해 모두가 사용할 만큼 충분한 양이 된다. 비경합 자원의 경우, 자원이 풍부
전략	효율적 자원 분배	사회적 관계 강화가 자원의 공정 공유와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결정적 요소
개인에 대한 개념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호모 이코노미쿠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사회적 존재
자연과 타인에 대한 인간의 관계	분리: 이것 아니면 저것,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인간 사회 대 자연	상호관계: 개인과 집단은 서로에게 바탕을 두며, 상호보완적
변화 주체	권력있는 정치적 로비 세력, 이익집단, 정부에 집중된 제도권 정치	분산된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다양한 공동체들로, 해결책은 주변 부로부터 나온다
초점	시장 교환과 성장(GDP)이 개인의 의지, 혁신, 효율성을 통해 달성된다	사용 가치, 공동의 부, 지속가능한 생계, 기업의 상보성
핵심질문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가	살기 위해 내가/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버넌스: 의사결정	계층적, 하향식, 지배와 통제	수평적, 탈중심적, 상향식, 자원 사용의 자기 관리, 감시, 조절

거버넌스 : 의사결정원칙	다수결	합의
사회적 관계 : 권력 관계	중앙집권화와 독점	분권화와 협업
사회적 관계 : 재산 관련	독점적 사유재산 :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하는 소유물 : 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
사회적 관계 : 경합 자원에 대한 접근(토지, 물, 삼림 등)	제한적 접근. 규칙은 소유자가 정한다	제한적 접근. 규칙은 사용자가 정한다
사회적 관계 : 비경합 자원에 대한 접근(아이디어, 코드 등)	제한적 접근. 법과 기술을 통해 희소성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제한 없는 접근. 열린 접근이 기본적인 기준
사회적 관계 : 이용 권리	소유자에 의해 부여되거나 부여되지 않음. 초점: 개인의 권리	공동 생산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됨. 초점: 공정성. 모두에 대한 접근 허용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습	타인을 밟고 올라섬. 경쟁이 지배	공유화 · 협력이 지배
지식 생산	기업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교육과 지식 생산에 스며든다	P2P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이 가능해진다
	지식이 사고팔 희소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지식이 사회의 공익을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독점 기술	자유 및 오픈 소스 기술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전문성이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	지식은 사회적, 민주주의적 통제 대상이 된다
시사점: 자원	고갈/수탈 인클로저	보존/유지관리, 재생산과 확장
시사점: 사회	개인적 전용 대 집단의 이익 배제	나의 개인적 성장이 타인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 우호적인 관계를 통한 해방

* 자료 : Bollier(2015, 258-259)

이제까지 국내에서 커먼즈 논의는 학계에서의 담론 연구, 몇몇 지자체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응적 측면(reactive side)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측면(proactive side)에서 커먼즈 개념설정과 방식 확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프레임의 커먼즈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구라는 더 많은 이용자를 전제하기 이전에 로컬 이용자 연결이라는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로컬처럼 사회자본이 시장자본보다 더 중요한 곳에서 커먼즈는 더 유력한 모델일 수 있기 때문이다(Rifkin 2014, 156-157, 광노완 2015, 101에서 재인용).

V. 결론

사적 소유와 공공 사이에 커먼즈가 존재할 수 있다면 로컬 자원과 로컬 커머닝은 새로운 또 하나의 범주를 생산할 수 있다. 로컬 벤치는 비록 하나의 창업 형태이지만 지역주민과의 오랜 소통, 안정적인 로컬 생태계 조성, 정부를 포함한 수많은 남녀노소 주체의 참여(창업가 정신 혹은 창업가 혼자 로컬에서 창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양한 자치규약 협의라는 커머닝 방식 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가장 적극적인 커먼즈와 커머닝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 커먼즈 정책(혹은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정체성·개념 문제를 바탕으로 커먼즈의 개념과 범위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부존에서 창조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지만 정책으로서의 커먼즈는 여전히 불완전한 체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커먼즈가 아니라 로컬 커먼즈나 생활 커먼즈와 같은 실감도 높은 개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주민 자산화나 마을호텔과 같은 실천형 커머닝 사례를 소개하였다. 주민 자산화 역시 새로운 조류의 연장선상에서 자치조합, 공동체논의와 같은 전통적인 커머닝 방식이라기보다는 자산화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과 영리추구라는 전향적 방식

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커머닝 방식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다양한 로컬 벤처들이 로컬 창업의 일부로서 로컬 커먼즈를 시행하고 있는데, 로컬 자원 자체가 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발굴자원이나 창조자원 등을 통해 일종의 지식자원을 형성하는 변화 과정에 있고, 커머닝 방식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정체적으로 머무는 커머닝이 아니라 중간관리조직, 임팩트 투자,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등을 통해 그 다이내믹스(dynamics)가 구성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역동성은 단일 정책이나 특정 방식에 의해 커머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한다. 도시 커먼즈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용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로컬 커먼즈의 경우에는 더 다양한 모델과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매우 다양한’ 로컬의 상황과 이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는 해결책을 넘어서서 N개의 로컬에 적합한 ‘N+’ 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작업이다.

합리적 개인주의로 인해 촉발되는 진짜 비극은 공유(재)의 비극이 아니라 시장의 비극인 썸이다. 더구나 자연의 부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어떤 표준화된 공식이나 청사진 같은 것은 없다. 커먼즈는 만병통치약도 유토피아도 아니기 때문이다(Bollier 2015, 38, 54, 164).

앞으로도 어떤 공유재이고, 누구에 의한 공유이며, 어떤 방식의 공유화인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유재에 대별되는 것이 아닌 사회 자산이나 이기적인 개인이 아닌 협력하고 소통하는 개인과 집단의 가능성 그리고 무수한 협업 방식(공유화)의 구현은 언제나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커먼즈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은숙·김종석. 2013.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 E. Ostrom의 기여와 남겨진 연구과제들.” 『한국행정논집』 25권 2호, 531-557.
- 곽노완. 2015. “공유의 시대, 열리고 겹치는 공유도시의 비전.” 『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3호, 100-122.
- 권범철. 2020.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호, 17-49.
- 김갑곤. 2019. “도시를 민주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시민자산화 운동: 인천도시공간과 커먼즈, 도시에 대한 권리.” 『황해문화』 6월호, 411-418.
- 김선필. 2014. “공유지 복원을 위한 이론적 검토: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통한 공유지 비극 모델의 재해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11권 3호, 172-201.
- 김선필. 2018. “커먼즈 관점에서 바라본 제주 지하수와 공동체 관계의 변동.” 『한국사회학연구 ECO』 22권 2호, 101-141.
- 김자경. 2017. “커머닝 개념을 통한 마을의 문제해결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제주 금악마을의 양돈 악취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17권, 87-117.
- 데이비드 하비·한서린. 2017. “커먼즈의 미래: 사유재산권을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 45권 3호, 54-64.
- 미쓰마타 가쿠·윤여일. 2020. “커먼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자치규약의 역할: 일본 오히라 지역 공유림을 사례로.” 『일본문화연구』 74권, 67-89.
- 박숙자. 2020. “학술지식은 커먼즈다: 지식공유연대와 OA 플랫폼.” 『문화과학』 101호, 193-209.
- 박형준·이경숙·최정은·김이경. 2020. 『공생을 위한 커먼즈 경제와 한국의 커먼너들』. 서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지식공유지대.
- 배수현 역.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서울: 갈무리. Bollier, David. 2014.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New Society Publishers.

- 서울시. 2015.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
- 서울시. 2016. 10. 『2016년 하반기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시. 2017. 『2017 하반기 공유도시 정책 시민 인지도 조사 결과 보고』.
- 서울시. 2018. 12. 『2018년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
- 서울시. 2019.12.31. 『2019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결과 발표』.(서울시 공유허브 http://www.sharehub.kr/sharestory/news_view.do?storySeq=2221, 검색일: 2020.03.10.)
- 서준교. 2020.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논쟁적 접근.” 『NGO연구』 15권 1호, 97-144.
- 실비라 페데리치·조지 카펜치스·권범철, 2020.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서 커먼즈.” 『문화과학』101호, 173-190.
- 심소미. 2020. “더 힘을 합치는 세계에서: 아트 커먼즈와 도시 커먼즈.” 『문화과학』101호, 122-148.
- 안도경. 2009. “등대와 어장: 코즈, 오스트롬 제도연구의 공공성 논의에 대한 함의.”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51-759.
- 안도경. 2011. “시장-정부 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R. H. Coase와 E. Ostrom의 제도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7권 1호, 35-56.
- 안승재. 2018.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사고의 모색.” 『비판사회정책』 60호, 463-470.
- 위선주 역. 2013. 『공개하고 공유하라』. 서울: 청림출판. Jarvis, Jeff. 2011. *Public Parts*. Simon & Schuster.
- 윤여일. 2017. “강정, 마을에 대한 세 가지 시선: 커먼즈에서 커머닝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1권 1호, 71-109.
- 윤여일·정영신·최현 역음. 2017.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과천: 진인진.
- 윤자형·황규환 역. 2018.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서울: 갈무리. Bauwens, Michel and Vasilis Kostakis. 2014. *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 Springer.
- 윤홍근·안도경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

- 화』.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Ostrom, Elinor. 1991.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이광석. 2020.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털로부터 읽기.” 『문화과학』 101호, 50-78.
- 이명섭 · Elinor Ostrom & James Walker. 2004. “제도, 이질성, 신뢰 그리고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협동가능성.” 『한국행정학보』 38권 1호, 1-21.
- 이병천. 2018. “커먼즈론은 공동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 세 가지 시선.” 『시민과 세계』 12월호, 239-262.
- 이병현 · 최일영 · 김재경. 2020. “도시 특성에 기반한 공유 자전거 이용 패턴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연구: 서울시 데이터 사례 분석.” 『Information Systems Review』 22권 1호, 147-165.
- 이승원. 2019. “디지털 플랫폼 기반 도시 커먼즈 운동과 포퓰리즘 정치의 가능성.”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61-165.
- 이승원. 2020. “포퓰리즘 시대, 도시 커먼즈 운동과 정치의 재구성.” 『문화과학』 101호, 79-97.
- 이원재. 2020. “문화 커먼즈와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실험.” 『문화과학』 101호, 149-172.
- 이일영. 2017. “커먼즈와 새로운 체제: 대안을 찾아서.” 『오늘의 문예비평』 12월호, 202-216.
- 이지은 역. 2020. 『도시 커먼즈로의 이행을 통하여 사회를 바꾼다』. 서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 지식공유시대. Bauwens, Michel and Vasilis Niaros. 2019. *Changing Societies through Urban Commons Transitions*. Heinrich-Böll-Foundation & P2P Foundation.
- 이희환. 2018. “인천 공공유산의 파괴와 커먼즈 운동의 모색: 애경사, 인천 가톨릭 회관의 철거와 애관극장의 미래.” 『황해문화』 98호, 367-375.
- 장교식. 2010.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8권, 297-315.
- 장훈교. 2019. “엘리너 오스트롬의 ‘다중심적 접근’에 관한 기초 연구.” 『사회와 이

- 론』 11월호, 101-137.
- 정기황. 2020. “공유지 개념 변화로 본 토지제도.” 『문화과학』 101호, 98-121.
- 정남영. 2015. “커먼즈 패러다임과 로컬리티의 문제.” 『로컬리티인문학』 14호, 89-122.
- 정영신. 2014.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ECO』 18권 2호, 205-214.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연구』 20권 1호, 399-442.
- 정영신. 2017.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제주 선흘리 마을과 선흘 공동백동산 관계를 사례로.” 『로컬리티인문학』 17호, 119-163.
- 정창원 · 정영신. 2017. “공동체에게 공동자원이란 무엇인가.” 『문화와 융합』 39권 3호, 163-192.
- 조운경 역. 2020. 『커먼즈 경제에서의 가치 문제: 개방형 기여 가치 회계의 발전』. 서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지식공유시대. Bauwens, Michel and Vasilis Niaros. 2017. *Value in the Commons Economy: Developments in Open and Contributory Value Accounting*. Heinrich-Böll-Foundation & P2P Foundation.
- 최현 · Tai Hsing-Sheng. 2015. “공동자원론과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 사회』 108호, 166-198.
- 행정안전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9. 『알기 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6.04.07. 『무단점유 · 누락된 공유재단 철저히 찾아 낸다』.
- Bauwens, Michel and Yurek Onzia. 2017. 6. *Commons Transition Plan for the City of Ghent*. P2P Foundation.
- Hardin, Garre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 P2P Foundation. 2015. *Commons Transition: Policy Proposals for an Open Knowledge Commons Society*.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Local Commons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Revitalization: with a focus on Local Resources and Resident Capitalization

Lew, Seok-Jin | Sogang University

Cho, Hee-Jung | Sogang University

Kim, Yong-Bok |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commons policy and movement, in regards to the institution, identity, and concept. The concept and boundary of the commons are evolving from the tangible resources to the intangible resources as well as from the endowment to the creative resources thru creative destruction. However, the commons policies adopted thus far, are bounded by the traditional concept, thus very limited in their effects. With the case study of Town Hotel Projects, we propose the policy solutions both at the institutional and the operational level; 1) lags in the creating ecological commons feedback system, 2) top-down operation, 3) lack of evaluation system, 4) needs for the bottom-up approach, 5) application of the various commoning methods, and 6) extension of the local boundary.

Key Words | Commons, Local Revitalization, Local Resources, Resident Capitalization, Town Hotel